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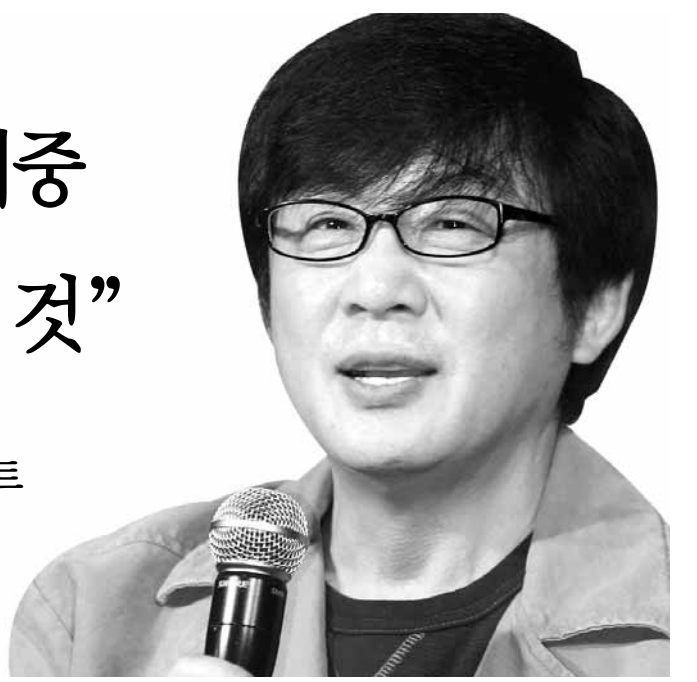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It list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3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플러스3. It lists EBS Pl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4일음 12월 16일辛亥. It provides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내 존재 이유는 대중 카멜레온 가수 될 것”



데뷔 40주년 전영록... 내달 8일 콘서트

“가수활동을 오래한 비결을 많이들 묻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드더라고요.”

“영원한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유효한 전영록(61)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이한다는 소감에 관한 질문에 “제가 흑백텔레비전 시절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오래 하기는 했다”며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트레이드마크가 된 검은색 뿔테 안경에 데님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오래 가수활동을 유지할 수 있던 공을 주위에 돌렸다. “결국 대중음악은 대중이 불러줘야 혼자서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동안 연출자분들, 기자분들, 다른 많은 분과 함께한 덕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중음악은 대중이 불러줘야 혼자서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동안 연출자분들, 기자분들, 다른 많은 분과 함께한 덕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75년 1집 ‘나그네 길’로 가수로서 첫발을 내디딘 그는 다음달 8일 자신의 가수인생 40년을 총정리하는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차분한 분위기의 곡이 대세였던 1980년대에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를 앞세운 전영록의 등장은 당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정바지와 선글라스로 대표되는 전영록 특유의 패션이 인기를 더하며 ‘영원한 오페라’, ‘원조 아이돌’ 등의 수식어를 남겼다.

전영록은 점차 자신의 대표곡인 ‘불타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가 사실 다른 가수를 위해 만든 곡이었다고 털어놨다. “원래 저는 ‘애심’ ‘그대 우나봐’ 같은 발라드나 블루스곡을 통기타 들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서서 노래 부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던 중 당시 인기 댄스 가수였던 나미를 위해 ‘불타나’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만들었으나 나미가 비슷한 느낌의 ‘빙글빙글’로 활동하자 할 수 없이 직접 부른 것이 현재의 가수 전영록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 춤도 잘 못 춰. 엄격결에 쇼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미를 흉내 내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불렀는데 다음날 아버지(고 황해 선생)께 많이 혼났다”고 말했다. 전영록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다.

“바람이 멈추어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은 장벽에 빛을 갈아요’ ‘알미운 사람’ 등 1980~1990년대 히트곡이 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곡을 잘 써서가 아니다. 가수들이 잘 불러준 덕분”이라며 겸손한 답을 내놨다.

“여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히트가 꽤 됐는데 남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잘 안됐습니다. 결국 그 가수들이 잘 불러서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 거지요.”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작곡곡도 ‘전영록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자신을 어떤 특정 장르의 가수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카멜레온처럼 이 장르, 저 장르 다 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트로트를 잘 못하는데 그것도 꺾으려면 또 잘 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대 활동한 가수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시봉”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가수들과 ‘토토가’로 복고 열풍을 일으킨 1990년대 가수 사이에 끼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들 잘 보고 왜 요즘 방송에 안보이느냐고 하는데 설 무대가 많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 말하는 프로그램만 있고, 나가면 쿵푸하라고만 하니 다음부터는 안나가게 됩니다.”

그는 이번 40주년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를 통해 팬들과 더욱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전영록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는 다음달 8일 오후 6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미생’ 울며 불며 봤다 인간의 이야기 감동”

새 주말극으로 컴백 앞둔 김수현 작가

“드라마라는 건 사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얘기를 쓰면서, 그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유나의 거리’와 ‘미생’을 아주 잘 봤어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노(老) 작가의 목소리는 흔들림없이 카랑카랑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실려오는 생각은 짙었다. 한국 드라마계의 대모 김수현(72) 작가는 2일 제주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2009년 명예 제주도민으로 위촉된 이래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는 김 작가는 “올해는 작품 계획이 없어 제주도에서 많이 지내고 있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말했다. 드라마 시청률은 갈수록 양극화하고, 그런 와중에 비슷한 ‘스팩’을 갖춘 ‘막장 드라마’가 아찔자극으로 범람하는 상황에서 이 백전노장 드라마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을지 궁금해 전화를 걸었던 터였다. 시원시원한 어법의 김 작가는 ‘막장 드라마’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작에 (이런 거 안보고) 은퇴했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그간 막장 드라마의 폐해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지적한 터라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더 말했자 욕이나 먹을 것”이라며 절절 웃었다.

대신 그는 “‘유나의 거리’와 ‘미생’을 아주 잘 봤다. ‘유나의 거리’는 내 홈페이지를 통해 두어 차례 언급했는데 곧바로 또 ‘미생’을 이야기하는 게 좀 그래서 ‘미생’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참 잘했다”고 말했다.

“미생”은 주로 30~40대 직장인이 열광한 드라마였다.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금도 후폭풍이 강하지만 70대 작가가 애정했다든 경험담은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무자식 상팔자’ ‘천일의 약속’ ‘인생은 아름다워’ 등 그가 최근 4년간 선보인 작품은 보면 작가의 마음과 필력의 나이가 얼마나 젊은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드라마에서 시청률은 젊은이들의 몫은 어느 젊은 작가의 그것들

무색하게 만든다. 김 작가는 “‘미생’을 울며불며 봤다. 애들이 너무 가여웠고 안스러웠다. 난 그 드라마를 재미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인만 공감하란 법 없나. 자식 가진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잖아요. 인물들 모두 현실에 있음직한 사람들이었고요. 배우들은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쉽게 짐작했어요.” 두 팔 벌린 극찬이었다.

“쉬고 있을 때는 거의 모든 드라마를 1~2회는 다 챙겨봐요. 그러고서 마음에 들면 계속 따라가죠. 막장 드라마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 희회를 느끼다가도 ‘미생’ 같은 거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률이 하늘을 찌러도 황당한 이야기는 안 보게 되고 음모, 술수, 잔꾀는 불쾌해서 못 보는 과묵한 사람이라, 멈추고 불만만, 기다려서 보는 드라마를 그리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면서 ‘유나의 거리’의 김연경(61) 작가에 대해 “따뜻할 마음과 시각이 진정으로 부럽다. 동업자인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화제 속에 막을 내린 SBS TV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후 쓴다는 그는 2015년 초 SBS 50부작 주말드라마를 통해 컴백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쓸 겁니다. 물 같은 얘기를 쓸 거예요. 보다가 고요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려고 합니다. 시청률은 모르겠어요. 시청률과 작품성은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SBS에다가는 1.2%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하.”

중편채널에서 방송한 ‘무자식 상팔자’도 시청률 10%를 넘긴 작가의 말이나 ‘물론’ 놓이다. 김 작가는 “요즘 작가들이 죽을 힘을 다해도 시청률 10%를 넘기가 어려워졌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드라마가 장난도 아니고, 인간의 얘기를 그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허반기에 신작 집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휴뉴스